

**“지어놓은 도서관이 제구실을 할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짓지 않는 것만 못하다.  
 오히려 제구실을 못하는 도서관 때문에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이미  
 지가 흐려지고 있다”**

1974년 6월은 아무래도 지난 5월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1976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의 서울개최 소식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다.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동경에서 열린 IFLA 이사회에서 1976년 제42차 총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하고, 6월 2일 IFLA 목록위원회 도로시 앤더슨(Ms. Dorothy Anderson) 간사가 방한, 한국도서관협회에 결정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앤더슨 간사는 우리나라 관계인사들과 총회 개최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 며칠 후인 7일에는 각 일간신문이 “특종기사”로 1면과 문화면에서 이 소식을 다루었다고 한다. 신문 뿐 아니라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도 이 사실을 뉴스 시간마다 보도했다고 한다. 일찌기 우리나라 도서관 활동이 언론을 통하

여 크게 부각된 사례가 없었는데, IFLA 총회 개최 사실은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당시 우리 도서관계가 얼마나 고무되었을까 미루어 짐작해 본다. 개최확정까지의 경과를 잠시 살펴보자. 우선 1976년 총회를 유치하기까지는 1969년 5월에 서울에서 3일간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도서관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1971년 영국 리버풀시에서 열린 IFLA 총회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아시아지역에서의 IFLA 총회 개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까지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후 꾸준히 우리나라에서의 총회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1973년 4월 3일 정식으로 한국개최의사를 천명한 서한을 IFLA에 보내게 된다. 이에 IFLA는 체코와 브라질도 1976년 총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 온다. 우리나라는 1973년 프랑스 그레노블 시에서 열린 총회에 유치활동을 위한 대표단 5명을 파견하여 총회 기간 중 각국 대표들에게 우리나라 개최의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그 결과 다음 해인 1974년 드디어 1976년 총회의 서울개최가 확정된 것이다. 당시로서 국제적인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서관계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에 대해 당시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도협월보》 6월호 'KLA코너'에서는 그 이유를 IFLA 총회에 북한, 소련 등 공산국도 초청된다는 점과 세계 88개국에서 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도서관계 국제회의가 아세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도 “공산 19국도 초청”이라고 뽑은 것을 보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열릴 국제 회의에 공산권 국가들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매우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같은 점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작성한 자료에서 제시한 것을 받아쓴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1973년 6·23선언으로 인해 어느 정도 공산권 국가들과의 문호개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1976년 IFLA 서울총회가 그러한 정부의 정책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아무튼 IFLA 총회 유치는 사람들의 관심영역 밖에 있던 도서관계를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유치하고자 한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KLA코너'의 필자인 韓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특종기사의 보도는, 도서관사업의 중요성을 한층 크게 부각시켰으나 왜, 그것

이 특종기사꺼리가 되었던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도서관발전을 위한 진로개척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도서관인들 사이에서 재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정말 왜 특종으로 다루어졌을까? 그리고 도서관발전을 위한 진로개척을 위한 진지한 내적 논의는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이 있을까? 드디어 2006년 IFLA 서울대회를 앞두고 30년 전의 이러한 질문이 지금도 유효한 지는 모르겠다.

한국도서관협회의 2차 이사회가 6월 20일 있었다. 여기서도 역시 IFLA 제42차 총회 유치 결과 보고가 우선 있었고, 이어 1974년 총회에 참석할 한국대표 파견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사들은 12명의 회원이 참석을 희망하였는데, 1976년 총회를 앞두고 비록 자비부담으로 참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분을 파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장시간 토의' 한 후, 총회 참석하는 대표들은 그 임무가 중요하므로 총회에 참석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계획해야 할 것이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 선발 문제와 1976년 총회에 대비한 전략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합의하고, 소위원으로 박영희, 박계홍 이사와 장일세 전문위원장, 정필모 교육조사분과위원장, 박대권 사무국장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한 후에 의장(김두홍 전무이사)은 '외국의 각종 회의에 대표를 파견함에 있어서의 선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대한 정보전달 등을 잘못하여 국가적으로 누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과 자비로 외국의 회의에 참석할지라도 “회의에 착실히

참석함은 물론 다른 대표들과 보조를 맞추고 외국 의 도서관전학등을 성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도협월보》에 게재된 회의록은 전하고 있다. 결국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IFLA 총회에는 이선근 한국도서관협회장을 단장으로 박계홍(한국과학기술연구소 도서실 차장), 김중희(홍능기계공업사 자료관리실장), 장일세(한국개발연구원 도서실장), 박대권(사무국장) 등 4명을 대표로, 구자영(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배현종(상명여고 교장), 이용(원화여고 교장) 등 3명은 옵서버로 참석하였다고 한다. (결국 신청한 12명이 모두 참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준에서 대표단을 구성하였고, 그 대표단이 실제 총회에 참석해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짚어볼 일이다. 2006 서울대회를 앞둔 우리로서도 올해 8월 아르헨티나 대회에 참석하는 대표단들도 각오를 새롭게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문제에 이어 제1회 아세아도서관학작회의 참석에 관한 건도 다루었는데, 이 역시 소위원회에 그 처리를 위임했다고 한다. 이 회의는 8월 19일-22일 일정으로 대북시 담강문리학회에서 열렸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8월에 다시 찾아보기로 한다.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6월 13일 고려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972년 발족한 이래 첫 번째 열린 총회로 경과보고, 임원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개선된 임원은 간사장에 건국대학교 도서관, 간사에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도서관이 각각 선출되었다. 한국도서관학회는 6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서 총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봉순 회장이 약 1시간 가량 1973년 11월 필리핀 마닐라 시에서 열린 제2차 동남아도서관대회(CONSAL)

참석결과를 보고하였다.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이봉순 회장이 다시 유임되고, 정필모, 정형우, 최성진 교수가 새로 간사를, 현규섭, 사공 철 교수가 감사로 선임되었다.

서울시립영등포도서관 개관 소식도 신문에 실렸다. 6월 1일 당산동에 건평 110평 건물을 신축하고 장서 8,000여권으로 개관했다. 이로써 서울시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1개의 공공도서관이 완성되었다고 《도협월보》가 전하고 있다. 당시 통계를 확인해 보니 동으로는 동대문도서관(1971.3.), 서는 영등포도서관(1974.6.), 남으로는 아마도 남산도서관(1922.10.), 그리고 북으로는 종로도서관(1968.8.)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0년 전 겨우 공공도서관이 4개관 뿐이던 서울시에 지금은 무려 40개(사립 6개 포함)관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양적인 성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정작 도서관 운영자들의 업무만족 정도는 어떤지 비교해 볼 길이 있으면 좋겠다. 영등포도서관 개관의 또다른 특징은 김영조 관장이 이전에 종로도서관 사서관으로 일한 바 있어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서관 전문인(사서)으로 시립도서관 관장이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예산중앙고등학교도 개교 100일을 맞아 6월 18일 건평 50평, 장서 600여권의 도서관을 마련하여 개관하였다고 한다. 고려대학교는 창립 70주년(1975년)을 기념하기 위해 총공사비 9억원으로 매머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6월 5일 기공식을 가졌다는 소식도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 우선 전국도서관학과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이 남겨져 있다. 연대, 이대, 성대, 중대 등 4개 대학 도서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대회가 6월 8일 토요일 연대 도서관학과 주

관으로 연대에서 교수와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고 한다.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체육대회는 각 대학이 윤번으로 주관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다. 첫 번째 대회에서는 야구, 배구, 축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이 치뤄져, 중대가 우승, 성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한다. 지금은 이런 대회가 열리지 않지만 1980년대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월 20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韓國書誌學辭典』이 출간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 하다. 이 사전은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 재직하고 있는 제홍규 사서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사서가 전문가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을까 한다. 국판 크기에 450면으로 경인문화사에서 발행된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목록 검색 결과 1989년 다시 출판되었다. 우리나라 고전적 서지사항조사에 필요한 관련용어를 해설하고, 고문헌목록과 고찰자 인쇄본 목록, 고찰자 견본 사진, 년표 등이 부록으로 실려 있어 고전적 연구자와 사서들에게 필요한 참고서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이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전이 새롭게 편찬된 바는 없는 것 같다.


《도서관》 6월호는 특집으로 '한국목록의 현황과 그 방향'을 다루고 있다. 정필모 중대 교수의 '韓國目錄規則의 問題點과 그 改正의 前提' 등 5편의 관련 글을 실고 있다. 또한 권두언으로 심우준 중대 교수의 '目錄과 編目'이라는 글을 실고 있다. 1964년 초판, 1966년 개정판을 낸 한국목록규칙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정필모 교수나 심우준 교수는 우선 '목록규칙'이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목록이라고 하면 '이미 작성 또는 편성된 서목'이기 때문에 목록규칙이라고 하면 '이미 되어져 있는 목록에 대한 규칙'일 수밖에 없어 정확하게는 '편

목' 규칙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집 기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목록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와 문제점 지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발행된 『韓國目錄規則 제4판』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목록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의 문제제기가 어떤 논의를 거쳐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되어야 할 일이 아닐까 한다.

《도협월보》는 특집으로 '공공도서관' 문제를 다루었다. 설치현황과 문제점, 소속청 일원화와 직제의 합리화 문제,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장일세(한국개발연구원 도서실장)씨는 이미 196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공공도서관설치 5개년계획'이 실제로는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그 원인을 공공도서관 기능에 대한 인식부족, 5개년계획의 무계획성, 그리고 행정체계의 3원화(문교부, 내무부, 문화공보부)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개년 계획에 대해 장일세 씨는 그 근본정신은 말할 것 없이 좋으나 '지어놓은 도서관이 제구실을 할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짓지 않는 것만 못하다. 오히려 제구실을 못하는 도서관 때문에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충실한 도서관 운영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계획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재정문제는 아니라고 단정한다. 당시 182개관 건립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예산이 18억원이 안되는 금액인데, 실제 고속도로건설에는 1km당 약 1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겨우 18km 거리의 고속도로 건설비밖에 안되는 예산이 없어 도서관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

문, 결국 도서관 발전이 지지부진한 근본이유는 정책입안자가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어 양태진(국립중앙도서관 사서관)씨는 공공도서관의 소속청 일원화와 직제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는 글을 쓰고 있다. 또 다시 여기서 우리는 늘 들어왔던 이야기를 거의 틀림없이 다시 듣고 있다고 생각된다. 30년 전에도 있었던 일원화 문제를 아직도 우리는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로 거론하고 있다. 그럼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 왔는가? 정책입안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도서관의 중요성과 가치,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시키기는 했는가? 그리고 행정 일원화는 왜 이루지 못했는가? 또 다시 앵무새 30년의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혹시 우리 도서관계와 도서관 사람들 손에 이미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과연 누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가. 도대체 언제쯤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열어가 수 있을지, 이제 이 시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

이 달치 글을 쓰다가 마지막에 와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다. 글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자료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그러나 그러기 위한 여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 우선 자료만이라도 제대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구 그 자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무엇보다도 《도서관》에 실린 '國立圖書館 論議에 대한 覺書(一)'이라는 이승주(국립중앙도서관 조사연구과)씨의 글 때문이다. (조사연구과라는 과도 있었네...) 이 글은 부제로 '특히 國會圖書館 百號의 「國會圖書館

에 對한 各界의 提言」과 「記念特輯」所論들을 駁함'으로 달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국회도서관이 발행하던 관보(館報) 100호 기념으로 실린 글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태 국회도서관 관보도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 반성한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 관보의 내용들도 검토해 볼 것이다. 그 외에도 좋은 자료들을 발굴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 (참고로 우리 협회는 2005년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를 쓰고 있다. 관련되는 그 어떤 유형의 자료라도 있다면 협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다. 역사의 충실한 규명, 그것은 오늘과 내일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오늘 이 순간의 역사와 자료를 제대로 챙기고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런 일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거듭 깨달을 뿐이다. 격려와 도움이 절실하다.)  [글: 이 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l.net]